

카프로, 황산 이어 암모니아 소동

7월11일 유한비료와 물 반응하면서 암모니아 발생 ... 이상은 없어

7월11일 오후 1시경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카프로 1공장의 비료보관 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소방서 화학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창고의 콘크리트 바닥 보수작업 중 바닥에 묻어있던 유한비료가 물과 반응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방대는 보수작업을 중단시키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한 뒤 가스 탐지조사 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자 철수했다.

한편, 카프로의 황산 배관시설에서는 7월2일 새벽 황산가스가 유출돼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12>